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람

최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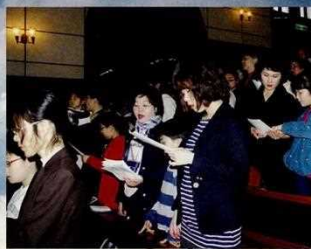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민 편집: 양재웅

오늘, 부활주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4).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이 아덴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행 17:17~32)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의 조롱을 받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우리를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증명합니다(고전 15:17~20).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갑시다(벧전 1:3).

*오늘 찬양예배 시 부활절 특별찬양이 있습니다



-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찬양할래요. (이성진, 유년부)
- 오늘도 세상의 잠깐 좋은 일들이 아닌 부활의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남궁양의 집사, 17교구)
- 주님 다시 살아 나셨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늘 증거하며 그 사랑의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창남의 집사, 7교구)
-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동희 안수집사, 11교구)
-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장운주, 유치부)
-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최지훈, 중등2부)
-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아주 기쁘고 행복해요. (석예정, 사랑부)



성금요일예배 메시지

성 금 요 일

종교 지도자들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의 자식"이라 하며 중오하였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모인 온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기증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마 20:28).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인간의 죄악의 반향이고, 하나님의 전권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온 자에게 저지른 가장 비겁하고도 추악한 행위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내신 독생자에게 범한 이토록 포악한 반역을 오히려 이 배반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길로 바꾸어 주셨다(히 1:2~3). 죄를 사함에 있어서 가장 악한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은혜로 바꾸셨다(롬 4:25).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완전한 승리의자(요 19:30 : 골 1:16)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증거(롬 3:25)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롬 8:3).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다(롬 3:26, 5:8). 과거에는 길이 참으시고 현재의 심판과 장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롬 5:8~9). 이 놀라운 은총이 복음 안에 나타났다(롬 1:16~17). 율법에도 놀라운 권위와 영광이 있으나 복음의 진분은 더 큰 영광이다(고후 3:9).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신비이다. 누구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풍부함에 참여한다(골 5:9~10).

비록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죽음을 자처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죄와 질병과 사망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포함한 계획을 선택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 주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사 6:9). 주님은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안과 밖, 위, 아래,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주님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먹도록 하셨다(요 6:35, 40).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실 수 있으며 또 행하신다(시 33:4).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말씀과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 안에 포함된 그리스도의 몸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성만찬을 행해야 한다. 성만찬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측량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의 유익과 구원이 가득 차 있는 최고의 의식이다(데 5:11~12).

주님의 식탁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초라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에는 신기한 비밀이 담겨 있으며 그의 천사들에게도 무한하게 높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어떠한 눈도 볼 수 없고 그 어떠한 귀도 들을 수 없으며 어떠한 마음도 파악할 수가 없다.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이 놀라운 은총을 맛볼 수 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세상의 어려운 형편에서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죄와 죽음, 지옥,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재앙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가나안 땅이라는 보이는 땅이 아닌 영원한 의와 생명, 천국, 은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 겸손히 죄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식탁을 대하자.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며 모두 합하여 한 덩어리, 한 잔이요, 한 영이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통해 우리 모두를 영적인 한 몸으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다. 이에 따라 우리 모두는 동등하게 그의 몸에 참여하여 하나로 연합된다. 아멘.

PEACE BE WITH YOU

⁽¹⁹⁾So when it was evening on that day, the first day of the week, and when the doors were shut where the disciples were, for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in their midst and said to them, "Peace be with you." ⁽²⁰⁾And when He had said this, He showed them both His hands and His side.

The disciples then rejoiced when they saw the Lord. ... ⁽²⁷⁾Then He said to Thomas, "Reach here with your finger, and see My hands; and reach here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and do not be unbelieving, but believing."

⁽²⁸⁾Thomas answered and said to Him, "My Lord and my God!"

(John 20:19-28)

After the fall of mankind in the Garden of Eden, humans continually search for peace. Everybody wants peace in their lives. No one likes the constant, bitter, and sometimes violent conflicts, struggles, rivalry, and disharmony that sin produces. The Lord God says, "There is no peace for the wicked" (Is. 48:22). When the day of the Lord comes, the wicked will say, "Peace and safety! Then destruction will come upon them suddenly like labor pains upon a woman with child, and they will not escape" (1Thes. 5:3). People seek peace in all kinds of people and things, but they cannot find it. Only the risen Christ is the source of peace! Jesus said,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 (Jn. 16:33). Jesus is the Prince of Peace (Is. 9:6), and He gives peace to God's children, just as the angels from heaven sang, "And on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Lk. 2:14). On the first evening of Jesus' resurrection, He came to His disciples and said to them twice, "Peace be with you." Since Thomas wasn't there, Jesus returned again when he was present with the other disciples and said a third time to them, "Peace be with you." Christians don't need to live in fear, worry, or isolation. We don't need to search for peace because we have Jesus. He gives us God's peace, which surpasses all comprehension and guards our hearts and minds.

We can have peace when we are afraid. The disciples hid themselves behind locked doors because they were afraid of the Jewish authorities, "So when it was evening on that day, the first day of the week, and when the doors were shut where the disciples were, for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in their midst and said to them, 'Peace be with you'" (Jn. 20:19). This was resurrection day, victory day! The angels of God rolled the tombstone away. Jesus' grave was empty because He resurrected. He was alive!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were fulfilled. Yet, the disciples of Jesus were afraid. Jesus appeared in that room even though they had locked the door. They could not lock the door from Jesus because His love overcomes any closed door. Jesus showed Himself to them and gave them peace. If you believe in the crucified and risen Lord Jesus, then all your fears should be gone. Faith in Him takes all fear away.

We can have peace when we are apprehensive. Even after Jesus appeared to His disciples and blessed them with God's peace, they still acted scared. Their minds were fixated on His death, so

perhaps they thought they were seeing a ghost. Jesus showed them both His hands and His side, "The disciples then rejoiced when they saw the Lord. So Jesus said to them again,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lso send you'" (Jn. 20:20-21). Jesus had to bless them with God's peace a second time. When they finally believed, Jesus sent them out and "breathed on them and said to them, 'Receive the Holy Spirit. If you forgive the sins of any, their sins have been forgiven them; if you retain the sins of any, they have been retained'" (Jn. 20:22-23). They went and told everyone about seeing Jesus. They told Thomas, "We have seen the Lord!" But he said to them, "Unless I see in His hands the imprint of the nails, and put my finger into the place of the nails,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Jn. 20:25). Like them, he could not imagine the risen Christ unless he could actually touch Him. Thomas doubted their story because his faith was weak. Faith in Jesus takes all apprehension away.

We can have peace when we feel alone. Thomas was alone. His closest friends had witnessed the resurrected Christ and were filled with joy, but he could not believe that Jesus had actually risen. He was by himself in his disbelief. He was lonely. Jesus understood Thomas' problem, "After eight days His disciples were again inside, and Thomas with them. Jesus came, the doors having been shut, and stood in their midst and said, 'Peace be with you.' Then He said to Thomas, 'Reach here with your finger, and see My hands; and reach here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and do not be unbelieving, but believing'" (Jn. 20:26-27). Although the doors were still locked, Jesus entered and gave His disciples peace. He called for Thomas to touch Him because He knew exactly what Thomas needed. Thomas said to Jesus, "My Lord and my God!" (Jn. 20:28). Jesus never gives up. Even though believers retain doubt and fear, He still blesses them with peace. Even though we are stubborn and act like we have no help, Jesus still gives us peace. Faith in Jesus takes away all loneliness.

My dear friend, are you enslaved by fear, then trust Jesus and He will give you peace. Are you worried about anything, like money, health, or family issues, then trust Jesus and He will give you peace. Do you feel lost, alone and without a friend, then trust Jesus and never feel lonely again because His peace connects you with God. Be not faithless! Practice your faith and experience the joy and peace that comes from believing in Jesus Christ. Amen.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¹⁹⁾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²⁰⁾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 ⁽²⁷⁾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²⁸⁾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요한복음 20:19~28)



김성관 목사

에덴동산에서 인류의 타락 이후 사람들은 계속해서 평화를 갈구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죄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괴롭고 때로는 파괴적인 갈등과 싸움, 경쟁, 불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인에게는 평강이 없다”(사 48:22). 주의 날이 임할 때에도 약인들은 평안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살전 5:3).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평화를 구하지만 결코 찾지 못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사 9:6).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부활하신 첫날 저녁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당시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과 근심,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평강을 찾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두려울 때 평안을 누리다

두려울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관원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20:19). 이 날은 부활절, 곧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무덤의 돌을 옮겨놓았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문이 잠겨 있었는데 방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잠긴 문이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는 닫혀 있는 어떤 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근심이 있을 때 평안을 누리다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축복해주신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유명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

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0~21).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야 했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믿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요 20:22~23). 그들은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되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요 20:25). 그처럼 도마 역시 실제로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 있었던 도마는 그들의 이야기를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근심을 몰아냅니다.

외로움 때 평안을 누리다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마는 혼자였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신 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문제를 이해하셨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 20:26~27). 문들이 여전히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부르시고 자신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 20:28).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자들이 의심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완고하고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외로움을 몰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돈이나 건강, 가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외롭고 친구 하나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코 외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9. 4. 12)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요한계시록 2:1~3)



오늘 본문은 에베소교회에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제2:1).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알고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죽고도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제2:2~3). 이 말씀 중 “내 이름을 위하여”에 집중하자. “내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알고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할 뿐 진실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믿음의 길을 걷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참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서로 용서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되었는가? 십자가를 통한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주셨으며 당신의 이름을 죄인들에게 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엡 4:32). 용서에는 수적인 제한이 없으며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마 18:22).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막 11:25). 나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하는 용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볼수록 용서의 삶을 살자(골 3:13). 한편으로 우리는 의식으로 가득한 용서를 경계해야 한다. 자신의 명예와 존경을 얻기 위해서 하는 용서는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용서의 기준과 이유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의식의 늪에 빠지게 된다. 오직 십자가를 볼수록 무제한의 용서를 받아.

다른 자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여기서 봉사는 복음을 위한 섬김, 즉 중언의 삶(제1:8)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데 매우 익숙하다. 겐로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중심은

그리스도의 이름과는 상관이 없다. 항상 자신, 또는 자신과 연관된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후 4:5).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써 이 땅에 오셨다(골 19:10; 마 20:28). 이와 같은 예수님의 봉사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골 2:6-8). 인간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을을 전하자(고전 9:19).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매 순간 죽어야 한다. 즉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다(마 16:24).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다(고후 4:11).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며 봉사하는 삶에는 환난과 핍박이 동반한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며 좁은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골 8:36~37).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다(마 10:39).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갈 2:20). “반드시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리라”(딤후 2:11-12).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죽음은 끝이 아닌 영원으로의 시작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즐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고난 중에도 담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은총으로 승화된 때이기 때문이다(고후 12:10).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 것도 없으며 약하고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신자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은혜의 비밀이다(고후 6:1~10). 세상으로부터 받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자(빌 1:29).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한 대열로의 길에 오직된 적이 있었지만 주님이 들이키는 커녕 오히려 담대하였다(빌 3:10). 그는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빌 4:13).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소리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으며 전부인가? 나의 계획, 수고, 간절함 등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진실로 다시 회개하여 이르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앞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19~20).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며 복음을 전하자.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으로 가득한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걷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마가복음 강해 66

가장 큰 계명 (12:28~34)

종교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책잡으려는 질문을 던졌다(막 11:27~28, 12:13~14, 28).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 예수님 때문에 떨어진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원했다. 치밀하고 집요한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단순 명료하였고 그들은 번번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물러갔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은 참 진리에 대해 알기를 원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은 무언가 달라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께 질문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가?”(막 12:28).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이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자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막 12:29~30).

예수님은 참 진리를 갈망하는 서기관에게 진리를 찾기 위한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그 순위를 매기신 것도 아니셨다.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적인 태도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신 6:4~5).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였다. 그런데 당시 진리를 알고, 연구하고,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종교지도자들은 겉으로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사람에게 있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에 보이려고 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들을 길게 하고”(마 23:5).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마음, 목숨, 뜻, 힘이 세상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신다 사람의 질서적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며 오히려 죽이려 했던 것이다. 사람에게에 대한 종교지도자들의 태도는 진지했는지 몰라도 정작 말씀의 핵심은 놓치고 있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십자가에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약할 뿐이다(창 6:5). 반역하는 마음과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렘 5:23; 막 7:21). 무엇이 문제인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하는 교만과 자존심이 문제이다. 사람에게에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놓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시 139:23~24). 보혈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깨끗함을 입은 신자만이 진실로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모습은 예배로 나타난다. 어린 양을 향한 무한 감사를 드러미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한다. 진실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원하는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모든 초점을 십자가에 두자(막 8:35).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31).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레 19:18; 눅 6:27~28).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인간에게 가능한가? 오직 하나님나라의 관개 속에서만 참된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 이미 죽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난 고통 중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사람만이 원수 같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볼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랑은 없다(요일 4:16, 20~21).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였다(막 12:32~33).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다”(막 12:34). 이 말씀에는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배어 있다. 또한 이것은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기도 하다. 왜 그런가? 천국 근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한다. 성경을 아는 것을 포함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행위를 통해서 천국 근처에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멀어졌던 삶에서 돌아키자(고 6:16). 가장 큰 계명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 매 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난 12월 충현기도원에서 팀장훈련을 받았을 때 중동1부 단기선교팀장을 맡아 달라는 권유를 받았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순종했다. 다음 날 바로 팀훈련에 들어갔지만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아이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다 변한다.'는 말씀을 믿고 팀이 변화되기를 기도했다. 우여곡절 끝에 3차 영성심사를 통과하여 잠시 한숨 놓았으나 4차 최종심사에서 언어를 통과하지 못하여 팀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다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언어공부와 찬양에 열심을 다하였다.

파송 하루 전 찬양예배 후에 받은 언어심사에서 우리팀은 완벽히 달라져 있었다. 믿음으로 충만했으며 변화된 모습이었다. 우리는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신 주님께 감사했다. 선교지에 도착하여 기도로 무장하고 나섰지만 조류 인플루엔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오리, 닭들의 배설물과 달라드는 사나운 개들을 보며 어린 학생들은 어찌할 줄 몰라 했다.

그날 저녁, 우리들의 연합함을 철저히 회개하며 그들을 사랑하게 해 달라고, 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날 우리는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가 되었고 십자가 군기를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 있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순백 처하는 율동은 이 세상의 어떤 악기보다도 아름다운 소리였고 찬양이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저 어린 심령들의 모습은 이 세상 어떤 광경보다도 아름다웠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마 11:25). 한 순간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홀로 놓아 둔 적이 없었고 항상 함께 하셨다. 주님께선 우리를 승리로 이끄셨다. 어린 아이 같은 은약함 속에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기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게 하셨다. 오래되어 풀처럼 굳어 있는 믿음을 자랄만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믿음에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다. "주님, 저 어린 심령들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배종락(인수집사, 중동1부 2팀)

이번 주에 할말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15일(수) ~ 4월 23일(목)	17교구 1팀	예정호
4월 16일(목) ~ 4월 23일(목)	20교구 1팀	석귀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교현장에서 이들이 지나자 우리는 감사를 담하였습다. 경찰의 관할 경계구역에 넘나들며 감시의 눈을 피해 전도의 사명을 숨바꼭질하듯 감당하였습다. 몇 차례 경찰에 붙잡혔지만 그 이후로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졌고 주민들의 신뢰와 복음배척, 문진박대는 더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다. 살대가 질문하면 알아듣지도 못하였지만 전도문장만은 살아있었습다. 가차호 방문하여 얼굴 표정만으로 인사를 하고 불과 5분도 안되는 동안에 말씀을 전했지만 예비된 자들은 영접하기를 "이런"으로 따라하였습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영접기도자를 찾으니 다닌 축복사역의 길이되었습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사역 중에 감시와 문진박대, 육신의 피곤함 등이 장애가 되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다. 우리는 우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당장 눈 앞에서 큰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결코 나심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다. 복음을 들은 자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나심하지 않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재를 가지고 모든 삶에 복음사역을 위해 충성을 다했습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눅 22:32). 짧은 기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또 다른 사역의 시작이기에 기도로 준비합니다. 우선 사역기간 중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현지인들로부터 핍박받을 영접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복경철들이 외국인 전도자들을 직접 제재할 수 없자 영접자의 가정에 들이닥쳐 얼굴색이 하얗게 변화하도록 격을 주던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를 귀박한 경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문히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행 28:27).

전종일(인수집사, 대학부 2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19-20

천국에서 그 영혼들과 만나서

우리팀은 선교훈련 도중에 탈락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저희 팀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합심으로 기도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어 우리팀을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영광을 허락하셨다.

선교지의 날씨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여름날씨였다. 처음 사역지로 나아갔을 때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었다.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을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셔서 그들에게 정말 서툰 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사역 전체가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과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사역이었다. 특히 이번 단기선교 기간 중에는 어린 아이들을 많이 만났다. 어린 아이들은 글씨를 읽지는 못해도 우리가 전하는 전도언어를 잘 따라서 해 주었고, 찬양과 함께 율동도 잘 해 주었다. 이 어린 친구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겨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성장했으면 한다. 또한 그 친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

사역기간 동안 항상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았다. 날씨가 더워서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주님이 예비해 두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마음에 기쁨도 있었다. 사탄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틈타려는 것을 느꼈고,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도 체험했다. 특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이 예비해 두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귀중한 뒤에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속해서 선교지의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중보기도하여 이후에 천국에서 그 영혼들과 만나서 기쁘게 인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김사무엘(대학부 4팀)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습관처럼 주일 아침에 교회로 향하는 우리 식구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무식코 집을 나서는 식구들에게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었그제 금요구역예배를 드리면서 종려주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종려주일의 참뜻과 의미를 모르고 있었는데 종려주일 전 구역예배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셨지만 묵묵히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며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준 어리석은 우리들을 생각하시며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를 받고 보니 마음 한쪽이 쉼해 옵니다. 평범한 인간으로 오셔서 평범한 옷을 입으시고 머리 돌 곳조차 없이 기나간하게 사신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셨습니다.

보잘 것 없는 나귀를 타시고 죽음을 맞이하려 오신 그분은 참으로 왕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나는 참으로 교만하고 뻔뻔한 죄인입니다.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건만 그분의 죽음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향유를 준비하지도 못한 죄인입니다.

종려주일을 지내며 저희 가족들이 참으로 겸손한 한 주가 되는 은혜가 일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의 삶속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말씀들 통해 깨닫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힘을 고백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길 소원합니다.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의 그저 지나가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홀리신 피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아들·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수정(집사, 4교구))

나에게 십자가는...



그림/ 박지은

십자가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떠오르는 데 평안하고 든든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심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십자가는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고통과 두려움을 없애 주는 존재이다. 나는 겁이 많은 편이라 웬지 모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를 얻게 된다. 또 슬플 때나 외로울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느낌을 받는다.

요즘은 사순절 기간이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던 40일을 뜻하는 말이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송한 생각과 감사한 생각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죄 짓기를 밥 먹듯이 한다. 물론 누구나 죄를 짓긴 하지만 나는 죄를 짓는 만큼 회개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 매일 밤, 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 회개기도도 하긴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이다. 이제는 간구하는 기도보다 감사와 회개기도를 많이 드려야겠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가게 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회개기도가 간구기도보다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또 제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지은(소년부)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막심인 공훈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베드로전서 1:3)

-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정연우, 유년부)
- 날 위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마음에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우연 안수집사, 15교구)
- 항상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안영숙 은희권사, 소망부)
- 일상생활에 바쁘다보면 예수님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많지만, 이번 부활주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한태희, 고등부)
- 부활절을 맞아 아직 어린 아끼지만 세회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권세희 엄마, 영아부)
- 부활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참 기쁜 날이다. (정은애, 초등부)
- 부활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 같다. 제관만 먹는 부활절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윤예민, 중등1부)
- 행복한 부활절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김종욱, 중등3부)

오! 승리! 눈부신게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여! 가난한 자로 오시어 온 인류에게 구원의 부요를 주신 하나님여! 나는 사랑합니다. 갈보리의 그 쓸쓸한 십자가를 나는 찬양합니다. 죽지도, 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내 주 예수님을!
(반연숙 권사, 4교구)

심자가의 길

부활의 원동력은 심자가!

지난 2월 25일 재의 수요일로 시작된 사순절이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그의 죽음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사를 찬송하였다. 심자가의 고난과 승리가 부활의 영광을 있게 한 원동력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다(골 2:15). 특히 사순절의 절정인 성금요일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삶' 잔타타와 성탄찬은 모든 성도들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각인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사순절기 중의 주일(초상)에 배, 수회부예배, 금요강림절 말씀들은 믿음의 길을 걷는 은총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며, 전생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였다. 그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면서 부활절기(4.12~5.30)를 지난다면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십자가를 붙들자. 믿음이 주는 은혜의 생수로 온 몸을 적시며 오순절(5.31)을 맞이하자.

*사순절 메시지(2.25~4.10)

1. 이케라독(2:12~14)
2. 바울의 소망
3. 최후의 만찬(골 2:14~20)
4. 스바의 여왕(왕상 10:1~13)
5. 육체의 삶과 영성의 삶(골 5:16~25)
6. 믿음으로 회복된 자는 살리라
7. 그리스도의 시절(골 4:13~2)
8. 신바나 시절(창 32:24~32)
9. 누가 가는가?(삼전 4:13~18)
10.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
11. 출마온 소망(골 15:4)
12. 삶이란 관주다(골 5:1~6)
13. 오 하나님 이변(사 16:23~30)
14. 삶은 아예 있는 인간(골 2:7~16)
15. 주여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사 64:10~12)
16. 십자가의 삶(골 6:9~11)
17. 두 시편(골 3:17~20)
21. 종려주일(마 21:7~11)
18. 출마의 지도 아래 있는 인간 : 유대인과 출마(골 2:17~29)
22. 성금요일
19. 하나님의 능력이(골 4:31~33)
20. 천사의 사역(히 1:7~14)
21. 종려주일(마 21:7~11)
22.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골 2:1~3)

*부활절은 왜 매년 다른 날인가?

부활절은 대개 매년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있다. 즉 춘분 후 만삭(보통 음력 15일)이 지난 첫 주일이다. 초대교회 때부터 3세기 동안 해마다 부활절 날짜에 대해 첨예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동방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부활절을 음력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서방교회(로마교)를 중심으로 한 서쪽에 위치한 교회들에서는 부활절을 주일에 지켜 주어야 하며, 십자가 처형은 금요일에 기념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결국 325년, 동·서방교회에서는 봄과 중추의 날을 둘 다 인정하여 부활절을 춘분 다음 첫 만삭 후 첫 주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매년 춘분날짜에 따라 부활절 날짜는 바뀐다.



청지기칼럼

너를 위해
심자가에 피 흘렸는데

어릴 적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게 되었으며 몸 된 교회를 섬기게 된 저는 고등부 때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심자가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율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시계추와 같이 일정한 거리만 움직이는 신앙생활이었다. 교회 안팎으로 열심히 봉사하였기에 외적으로는 성실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또 다른 나를 찾고 계셨다. 나에게 주신 사랑스런 딸을 먼저 보내게 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을 겪게 되었다. 그분의 뜻을 헤아려 갈 길이 없어 안타까워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너를 위해 심자가에 피 흘렸는데, 너 나를 위해 무얼 했나?"

주님은 나에게 믿음을 원하셨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가르치니(롬 1:17). 그동안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적인 복을 받으며 열심히 봉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라는 삼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요 6:29). 강단에서 선포되는 심자가의 복음은 내가 얼마나 어려서였는가를 깨닫게 하였다. 또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하였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어 심자가의 참 사랑과 구속의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과 통회 자복하는 심령을 주셨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나에게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참 행복이었다. "심자가를 질 수 있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 심자가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심자가는 사랑이요, 기쁨이요, 산 소망이었다. 민족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 그들의 눈빛을 볼 때 주시니 사랑이 일꾼이 되어 안타깝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이 가시발, 자갈길이라도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이 심자가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소원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빌 1:20). 빛 되신 주님께서 소망이 없던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시어 주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명주
(인수측: 유아부부장)

새가족양육부 3월 수료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깨끗한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에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신성숙)

▲ 고피 분당에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가서 있으며 은혜를 받고 성경공부를 하고 찬송을 부르니 즐겁습니다. (박세환)

▲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제 영에 항상 계시고 저를 지켜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심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한지영)

▲ 예수님은 저의 생명이십니다.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호)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532	심지순	2	대학부	정구환(7)	552	서수진	1	청년2부	이명철(10)
533	정희용	3	청년2부	양기우(4)	553	이재현	1	청년1부	김옥재(10)
534	한송희	14	청년1부	강석희(20)	554	강민희	10	청년1부	박현숙(10)
535	한순이	6	청년2부	한준학(4)	555	김태훈	13	소년부	김현숙(12)
536	한영숙	4	청년2부	김희동(4)	556	김희철	16	청년1부	한민교(24)
537	김현선	2	청년1부	윤선원(1)	557	김다영	2	청년1부	김종수(8)
538	정광환	2	청년2부	윤선원(1)	558	박미준	1	청년2부	남귀옥(14)
539	이규호	2	초등부	윤선원(1)	559	김성관	14	청년2부	계연(10)
540	안진우	8	중등1부	최화영(2)	560	장수민	10	청년2부	김동철(13)
541	김동호	8	중등1부	김희철(2)	561	박상수	16	청년1부	홍영희(9)
542	김영호	16	소망부	정영호(16)	562	비태영	5	청년2부	홍영희(9)
543	김성진	8	중등1부	정영호(16)	563	신민희	16	청년1부	지정택(16)
544	장길영	17	청년1부	최희철(24)	564	이진우	12	대학부	이은실(16)
545	김태현	16	고등부	송근영(9)	565	김정희	1	청년1부	유병희(2)
546	정지훈	1	청년1부	강신선(1)	566	양봉봉	23	대학부	안연식(18)
547	김재호	6	고등부	홍정호(24)	567	양정현	23	대학부	안연식(18)
548	민병호	13	청년3부	박경철(13)	568	김정현	22	청년2부	이경희(2)
549	윤일식	13	청년3부	박경철(13)	569	강창환	13	청년1부	
550	박순자	18	청년3부	구정희(9)	570	주정식	6	청년2부	이진규(6)
551	류진현	4	청년1부	김영구(4)	571	김미선	3	청년2부	노은숙(13)

* 중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